



성모 성월 - 5월

5월 성모 성월

전 세계 신자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달이다.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나 가정 공동체는 이 기간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마리아에게 드리고 기도와 찬미를 통해서 마리아의 숭고한 사랑을 찬양하고 있다.

절기 중 가장 아름답고 생명의 기운이 용솟음치는 달이 5월이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한다.

초세기부터 교회는 5월에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냈고, 중세 때에는 '오순절 축제'를 지냈다. 이처럼 교회의 달인 5월에 성모님께 바치는 축제가 시작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흐드러진 5월을 장미 정원을 장식해 성모님께 사랑을 표하는 '영의 축제'로 지낸 것이다.

중세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5월에 장미정원 장식
성모님께 바치는 '영의 축제' 지내



13세기

-5월 성모 성월로 봉헌하는 관습
스페인의 카스티야와 레온 왕국에서 처음 시작
왕이 직접 시와 노래 지어 성모님께 봉헌

16세기

-이탈리아 오라토리오회
5월 한달간 성모 공경 신심 행사 보급
-도미니코회가 시작한 성모 호칭 기도 유행

17세기 말

-성모 호칭 기도 유럽 전체로 확산
성모님께 장미 바치는 풍속 자리잡아
-예수회에 의해 대중신신으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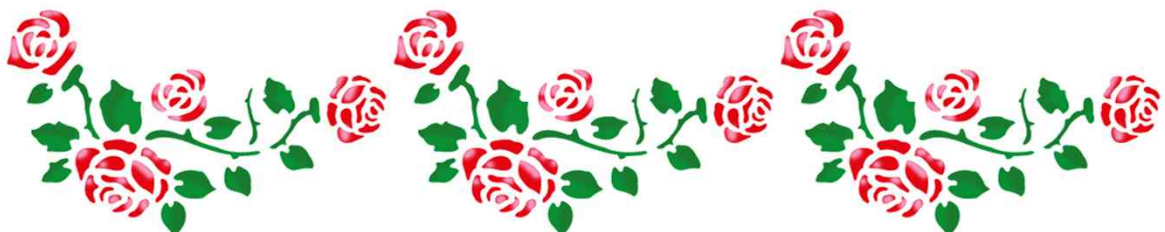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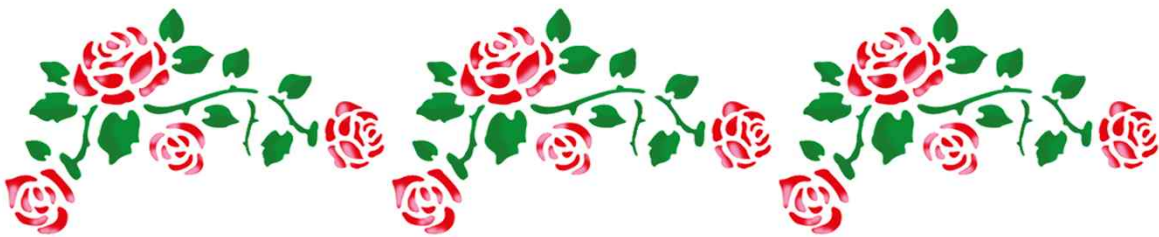
19세기 중엽

-아프리카까지 성모 성월 확산
1854년 '원죄없으신 잉태' 교리 선포
1859년 성모 성월에 전대사 허락

20세기

-1921년 「모든 은총의 중개자」 선포로
성모 성월 공식 인준





묵주기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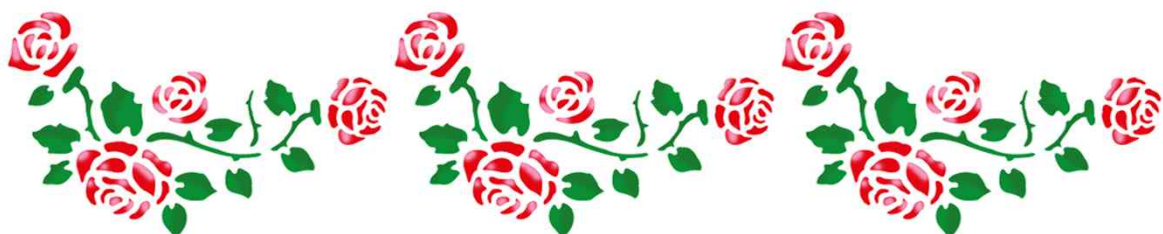
○ 의미 : 묵주기도는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이루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며 성화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기도이다. 라틴어로 로사리오(장미 꽃다발, 장미화간을 뜻함)로 표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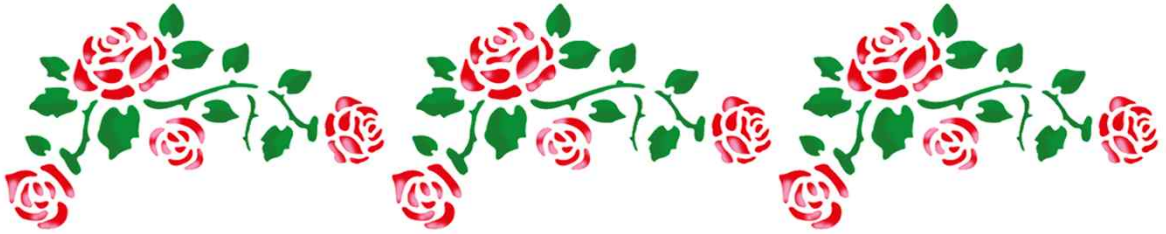
어느 종교에서든지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 번수를 세기 위한 도구로 실에 꿰 구슬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염주라고 하고 가톨릭교회에서는 묵주라고 부른다.

묵주는 십자가를 정점으로 하여 큰 구슬 여섯개와 작은구슬 스물세개가 원으로 꿰어져있다. 그래서 묵주기도 5단을 바칠때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바퀴씩 돌게되어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의 길이 끝없이 이어짐을 뜻한다. 또한, 묵주는 우리모두를 하느님 아버지께 묶어두는 사슬을 의미할뿐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매로 친교를 맺고사는것을 상징한다.

○ 기원 : 묵주기도의 기원은 도미니코회 수도원 규칙으로 시편 105편을 매일 외우는데서 비롯되었다. 수도자들은 시편 150편을 항상 기도하며 묵상하였는데 평신도들도 이 기도를 따르고 싶어하였지만 너무 길고 어려워 주님의 기도만 105번 염송하였다.

12세기 중엽 성모송이 일반화 되면서 묵주기도로 활용되었고, 15세기에 이르러 이 기도는 예수님의 구세사를 성모님과 관련지어 묵상하는 기도로 바뀌었다. 16,17세기에 성모송을 많이 바치게 될 즈음 150장의 묵상이 15장으로 줄어들었고, 15번의 짧은 묵상으로 오늘날과 같은 묵주기도의 간직한 깊은 뜻이 이루어졌다.





환희의 신비 (월·토)

-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빛의 신비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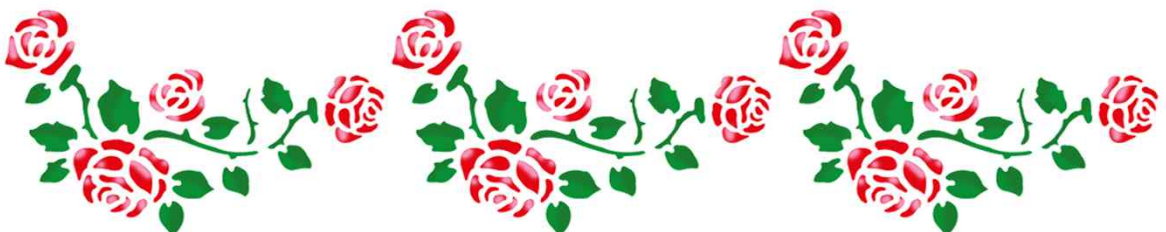
-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고통의 신비 (화·금)

-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영광의 신비 (수·일)

-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목주 색칠하기

